

SK케미칼, 아프리카 행복우물 착수

SK케미칼(대표 김창근)은 사단법인 팀앤티 인터내셔널(대표 이남식)과 함께 아프리카 현지에서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<SK행복우물>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5월16일 발표했다.

SK케미칼은 2012년 12월까지 아프리카 케냐 남동부의 타나델타 지역에서 식수공급용 우물을 개발해 3000여 명의 현지 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된다.



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식수 접근율은 61% 수준에 불과하다.

특히, 케냐는 2011년 60년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 저수지와 강물의 25%가 고갈돼 많은 주민이 더러운 물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.

SK케미칼 김창근 부회장은 “우리의 작은 정성과 노력이 지구촌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”며 “SK행복우물 착공에 그치지 않고 해당지역의 식수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사단법인 팀앤티 인터내셔널은 세계 주요 분쟁·재난지역에서 긴급구호와 지역사회개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수자원 개발 전문 국제구호 NGO(비정부기구)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5/16>